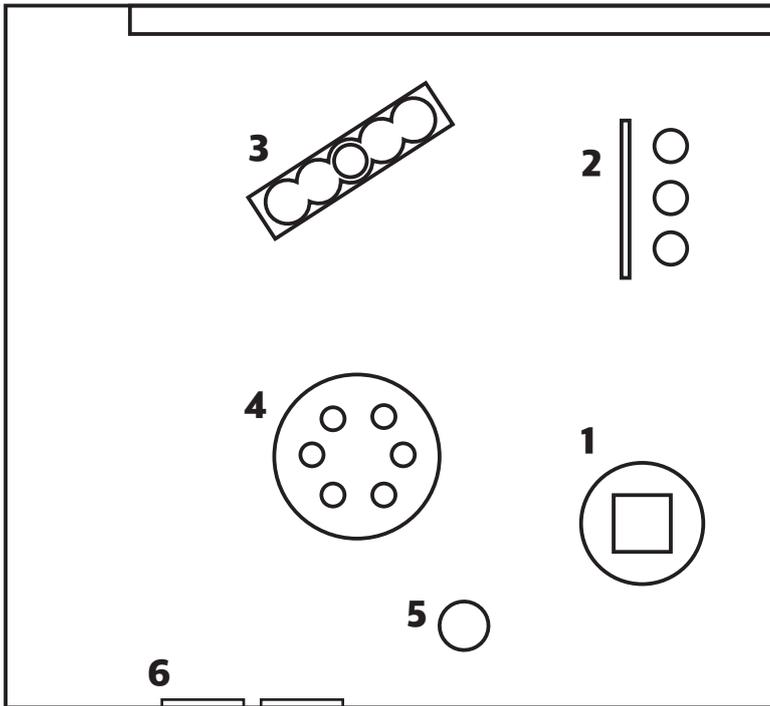


Summer Cheer

이해련 개인전

2020.08.04 - 08.13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전시장



1. **Cheer for EM-H1200, 2020**
EM-H1200, mdf, 모터, 3d프린팅, 70×70×155cm
2. **굴뚝 Smokestack, 2020**
EV-HU6000, FA114, CX-128HM, 포맥스, 가변설치
3. **Cheer for AR-05, 2020**
AR-05, 스틸, 124×50×255cm
4. **Cheer for OA-HM210, 2020**
OA-HM210, mdf, 120×120×32cm
5. **Cheer for SFB-018H, 2020**
SFB-018H, 바퀴, 라바콘, 가변설치
6. **Go! Fight! Win!, 2020**
젖은 수건에 자수, 가변설치

☞ <Cheer for SFB-018H>는 뜨겁습니다.

월요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니 눈앞에서 동서남북으로 거세게 수증기를 뿜고 있는 저 가슴기가 거슬리게 느껴졌다. 더 높은 곳에서부터 수증기를 뿜기 위해 수직으로 높게 꽂힌 분출구, 어떻게든 널리 퍼뜨리겠다는 일념 하에 사방형으로 디자인된 가슴 노즐, 꾸역꾸역 밀려나오다가 어느새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는 수증기 연기가 우악스럽게 느껴졌다. 사무실 공간을 좀 더 좋게 해보겠다고 애를 쓰는 모습이, 기능이 알게 모르게 작동해 꽤나 쾌적해진 실내가 불쾌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가슴기는 내가 한 번도 직접 구매하고 사용해본 적이 없던 낯선 도구였다. 건조한 공기에 종종 코피를 흘렸을지언정 그저 제 코피를 닦아냈을 뿐 직접 환경을 바꾸겠다는 결심은 하지 못했던 것이다. 집에서는 늘 빨래를 널어놓거나 식물을 키우다 보면 그럭저럭 쾌적했기에 별다른 장치의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나에게 가슴기는 마치 선행학습을 조장하며 학부모들의 불안을 자양분으로 성장하는 사교육 업체와 같은 존재였다.

가슴기라는 도구는 다분히 양면적이다. 적당히 사용한다면 실내공간을 축축하게 만들어 각종 바이러스를 예방해주겠지만, 그 이상으로 사용했을 때는 실내공간을 축축하게 만들어 공간 내에 곰팡이와 결로를 번식시키고 결국 집값이 떨어지게 만드는 치명적인 상해를 내기도 한다. 언제나 습도 100%를 향해 달려가는 가슴기는 지속적으로 제어하고 재설정하며 보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질주하는 존재이다. 매일 물을 비워주고 채워주고 씻겨주고 말려주는 뒷바라지를 하지 않는다면 물때가 생기고 세균이 번식한다. 또한 가슴기가 주체적으로 통제하는 '습도'는 눈으로 직접 보거나 매 순간의 변화를 감각할 수 없지만 의식하는 순간 차이를 깨닫게 되는 은밀한 성질을 띤다.

《Summer Cheer》는 이런 가슴기를 비판하고 괴롭히기보다 응원하기를 선택한다. 이들을 향한 응원은 가슴기의 자기파괴적 성질을 더욱 가속 가동시키고 가시화하는 일이다. 가슴기에 투영된 모든 욕망을 긍정하며 각 가슴기가 가진 기능을 더 극대화하거나 아쉬운 부분을 돕는 것이 그 응원 방식이다. 때마침 이들을 응원하기에 적합한 여름 장마철 시기에 이르렀다. 격려를 힘입은 가슴기들은 이곳에서 가장 최선의 편리를 제공할 것이다.